

LUXURY

JULY 2015



Seoul Beauty Spot 50

이국적 분위기의 액세서리

Summer Flower Styling

바닷가재가 있는 여름식탁

Cartier

부산에서 만나는 단색화의 거장, 이우환 공간

아름다운 철학 한 ‘점’을 보는 듯한 독특한 미학으로 세계적 거장이 된 이우환.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,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규모 조각 전시를 열 만큼 세계 미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입지가 남다르다.

안도 다다오가 설계한, 일본 나오시마 섬의 이우환미술관을 본다면 그의 작품을 한국에서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법한데, 이제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그의 대표작을 상시 관람할 수 있다. 부산 시립미술관 별관에 신축한 ‘이우환 공간Lee Ufan’이 그 무대로 1층 전시관에서는 철판과 돌 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주제로 한 ‘관계 향’ 중심의 조각 작품을, 2층 전시관에서는 ‘선으로부터’, ‘점으로부터’ 같은 회화 작품을 전시한다. 전시 작품은 설치 작품과 회화를 합해 총 23점에 이른다. 부산은 이우환 화백이 중학교 시절을 보낸 곳으로 이 화백은 전시 공간의 내부 디자인과 작품 배치, 공사 자재에까지 신경을 쓰며 본인의 이름을 건 미술관에 각별한 애정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. 홍보운영담당 박화영 씨는 “방 하나에 작품 하나를 콘셉트로 작품을 널찍넓찌하게 배치해 한 작품씩 집중해서 보는 묘미가 있다”라고 말했다.

별관에는 제법 큰 야외 잔디밭도 딸려 있는데 이곳에서도 거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. 야외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1960년대 초기작부터 2015년 최신작까지 약 20여 점이 전시돼 있기 때문. 모노하物派(모노もの란 물체나 물건을 뜻하는 일본어로, 모노하는 사물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동양적 현대미술 사조)를 평생의 키워드로 삼아 꾸준히 발전시킨 50여 년간의 미술 세계를 살필 수 있다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(우동) 부산시립미술관 내, 051-744-2602, art.busan.go.kr



1



2

3

